우리 동네 현장민원 해결 대표사례

- 고양동 연립주택 옆 담장 철거
- 일산동구청 앞 횡단보도 설치
- 현천동 난점마을 도로 연결
- 원당중학교 앞 교통 개선 회전지대 설치
- 덕양노인복지관 옆 산책로 설치
- 성저공원 내 산책로 및 운동시설 개선
- 학교주차시설 야간무료개방 고양형 주차공유제
- 고양동 600년 은행나무 주변 공원화
- 일산 나들목 등 19개 지역 교통혼잡 개선사업 완료 등

"생각의 차이가 현실적 조건을 만든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보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 된다. 거시적 관점의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양시 행정의 진짜 모습이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민선7기 고양시는 그간 해결이 지지부진했던 동네 구석구석의 불편함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담장 철거전

담장 철거후

도로연결 공사전

도로연결 공사후

고양동 연립주택 옆 담장 철거

고양동 연립주택 옆(고양동 319-2 인근)에는 설치자 미상인 너비 8m, 높이 3m 규모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은 어린이공원을 코앞에 두고도 500m 가량을 돌아가야만 했다. 고양시는 해당 도로가 시유지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 간 의견차가 있어 담장을 허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에 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1년여 간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주민 합의를 이끌어 냈고, 결국 6월에 담장 철거를 완료했다. 투입된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이지만, 담장 철거 하나로 안전하고 편리한 골목 환경개선을 달성한 저비용 고효율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산동구청 앞 횡단보도 설치

일산동구청은 1992년부터 지금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사이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인이 대폭 증가했는데도, 구청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구청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약 400m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가거나 육교를 통해 정발산공원으로 돌아와야만 구청을 이용할 수 있었다. 민선7기 고양시는 이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끝에 지난 7월 동구청 앞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또, 시는 좌회전이 불가능했던 주변지역 도로환경을 개선, 구청 주변 교통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있다.

현천동 난점마을 도로연결

난점마을에서 창릉천 제방도로 주변으로 연결되는 기존 마을도로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또, 현천동은 서울시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주민 재산가치 하락, 환경오염 문제 등의 피해도 함께 겪고 있어 고양시는 그동안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난점마을 도로 연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7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전액 확보하고 지난 7월 도로개설공사(연장 230m, 폭원 9m)를 완료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고양소식 특집호 9

민선7기 3년

"사람과 공동체 중심"

고양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는 시정의 중심에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으로 놓고 정의와 원칙에 입각해 민선7기 3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오랫동안 염원했던 숙원사업들이 착공되면서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선도적인 방역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 착공, 교통시설망 확충 등의 눈부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개발 위주의 논리가 아닌 시민과 기업, 도시와 자연, 사람과 공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고양시장 이재준

02 10대 성과

K-방역 선도 고양 안심시리즈

- 안심카
- 안심콜
- 안심숙소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7개 노선 반영
- GTX-A 등 신 철도망 구축 및 교외선 연장
- 20여 개 도로 정체구간 해소

미래 경제지도 완성

- '자족도시' 대전환 준비 완료
- to-city 고양이노베이션 허브
- 창릉3기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 성사혁신지구 착공
- 원당·화전·삼송·능곡·일산동 등 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람과 공동체 중심"

고양시 민선7기 3년의 눈부신 성과들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

- Y-CITY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
- LH 개발이익 환수
- 군사보호구역 해제
-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생활밀접형 조례 제정

- 대학생본인부담등록금 지원
- 한시적 양육비 지원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 배달노동자 안전

특례시 지정

- 2022년 고양특례시 출범
- 109만 고양시민의 새로운 미래
-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실현

100년을 바라본 신청사 건립

- 신청사 건립 행정심사 마무리
- 시민개방형·수요자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 탄소중립도시의 상징성 확보
- 장항습지 생태적 가치 국제적 인정

미래예산 4천억 원 적립

- 대형개발 살리는 적립
- 낡은 도심 살리는 적립
- 일자리와 기업 살리는 적립
- 녹색공간 살리는 적립

성과 타임라인 03

2018

7월
- 민선7기 출범
- 고양시 치매안심센터 3개소 설치 완료

9월
-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 출범

12월
- 군사시설보호구역 1,761만㎡ 해제
-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 대학도서관 공유형 창업·창의공작소 개소

2019

3월
-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조례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5월
- 행주산성 입장료 무료화
- 생활밀착형 SOC 사업 1,956억 원 발굴

8월
- 관내 버스정보 안내기 946대 설치
-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확대 시행

12월
- GTX-A 착공

1월
-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4월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최우수
- 한강하구 군 철책선 제거
- 신재생에너지 예산 298% 증액

6월
-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9월
- 생활밀착형 체감 조례 8건 제·개정

2020

2월
-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시작

8월
-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제정
-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

11월
- 장항습지 탐조대 개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1월
- 군사시설보호구역 430만㎡ 해제
- 킨텍스 제3전시장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5월
- 원당 배다리 행복 나눔터 준공

6월
- LH 지역개발 상생협약 체결
- 서해선 일산역 연장 관련 업무협약 체결
-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9월
-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운영 시작
- 안심숙소 운영 시작

12월
- 특례시 확정
- 노동취약계층 유급 병가 지원 조례 제정

2021

2월
-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 발표
- 백석동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

5월
- 고양방송영상밸리 기공식
-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7월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 원당 배다리 사랑 나눔터 개관
- 성사 혁신지구 착공

1월
-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조례 제정
- 군사시설보호구역 57.2만㎡ 해제

3월
-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최종 선정
- 토당 문화플랫폼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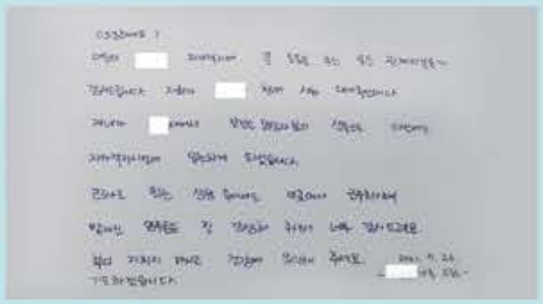
4월
- 신청사 건립 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
- 화전 드론영커센터 착공

6월
- 신청사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양시 7개 노선 반영

K-방역 선도
고양 안심시리즈

고양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혁신정책을 발 빠르게 도입했다. 그 결과 탄생한 '고양 안심시리즈' ▲안심카(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안심콜(전화 출입관리시스템) ▲안심숙소(자가격리자 숙소)는 K-방역을 선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방역 근무자 격려 증인 이재준 시장



안심숙소 이용자 감사편지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안심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고양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초기 유행 당시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 내 별도 분리 시설을 통해 운영되던 선별진료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결합하여 검사대상자가 차에 탄 채로 접수부터 검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탄생한 고양시 '안심카'는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한 혁신적 방역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사례는 국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표준 운영 모델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되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K-방역 모델의 대표적 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체제가 ISO표준안으로 추진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국제적 표준모델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주요방송사는 물론, BBC, CNN, NBC, AFP 등 외신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극찬하였으며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지자체 및 민간분야까지 벤치마킹이 확산된 결과,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녀노소·연령불문 편리한 이용 『안심콜』
전화 출입관리시스템

'안심콜'은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기록이 전산 관리되는 출입관리시스템이다.

고양시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낯선 QR코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기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했다.

안심콜은 서버에 방문기록이 저장되는 방식이라 역학조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다. QR코드나 수기대장에 비해 최소 하루 이상 빠르게 검사 안내가 가능하여 가장 효과적인 출입관리시스템이란 평가다.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폐기된다.

고양시는 2021년 7월 기준 약 2만 개의 업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관리 중이며, 누적 이용건수는 약 4천만 건에 달한다. 고양시에서 시작한 안심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도 100개 이상 될 만큼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정부도 그 효용성을 인정하여 중대본 회의에서 안심콜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대통령상'을 고양시에 수여했다.

가족감염 원천 차단 『안심숙소』
자가격리자 숙소

자가격리 대상자가 다른 가족과 한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양시는 이에 대상자에게 안심숙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 추가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가족과 생활공간의 분리가 어렵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아 격리 중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안심숙소에 입소하도록 안내한다. 물론 대상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안심숙소 입소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안심숙소는 지난해 9월부터 킨텍스 카라반 등에서 무료로 운영되어 가족 및 지역사회 추가감염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TV, 냉장고, 인터넷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도 적극 배려하고 있다.

이에 안심숙소 이용자들은 "대가족인 데다 자녀가 여럿이라 걱정했는데, 자가격리에 도움줘서 고맙다", "고양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등의 감사편지를 남기며 안심숙소의 편리성과 안전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Goyang

"교통혁명"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양시는 민선7기 들어 다양한 교통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철도 분야의 성과가 높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대장홍대선 ▲조리금촌선(통일로선) ▲교외선 ▲GTX-A노선 ▲서해선 ▲신교통수단(트램) 등의 11개 철도망이 확보되어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 확정… 고양시 7개 노선 반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하여 고양시가 그간 건의했던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대장홍대선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또 조리금촌선(통일로선)과 교외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되어 고양시 7개 노선이 모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고양시 반영 노선>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사업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 고양 일산서구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삼송~용산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추가검토사업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교외선	능곡~의정부

자료: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고시문 - 고양시 부분 발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고양의 교통혁명… "강남까지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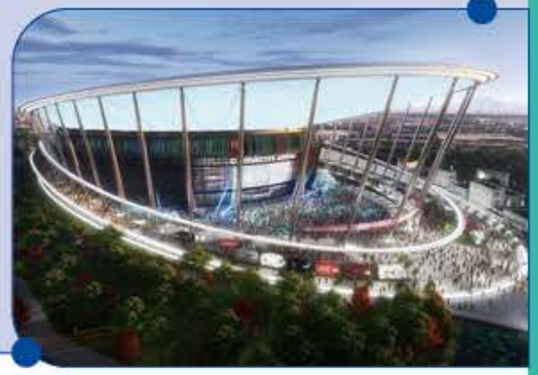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대곡·창릉을 거쳐 강남까지 20여 분만에 주파하는 GTX-A 노선이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총예산 2조 9,000억 원이 투입되는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에서 서울시 삼성까지 총 42.6km를 운행한다. 이 중 고양시 구간은 연장 20.26km, 지하 50m의 대심도 터널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고양시 관내 13개소의 수직구 굴착을 완료하고 본선구간 터널 시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해선·트램·경의중앙선… 더 촘촘한 교통망 구축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서해선의 고양시 구간은 기존에 대곡~소사 구간이었으나, 2020년 6월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부광역철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의 적극적 노력으로 일산역까지 노선이 연장되었다. 또 교통 낙후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온 식사지구는 고양시청까지 신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될 예정이어서 고양시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출·퇴근 혼잡도를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경의중앙선에는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 향동역 신설을 추진하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족도시" 미래 경제지도 완성

강산이 바뀌기까지 10년? NO! 고양시는 단 3년 만에 미래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창릉3기신도시에도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여 '자족도시'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



고양시의 미래 = "자족도시" 『to-city 고양이노베이션 허브』

고양시는 미래 100년 성장을 선도할 대규모 사업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장항공공주택단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2023~2024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입지 발표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었지만, 민선7기 들어 현금출자, 특별회계 등을 통해 사업비 1천억 원 전액 마련에 성공하였고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는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졌다. 주요 방송국과 관련 제작 지원시설 입주로 2,342억 원의 생산 유발 및 1,42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사업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북부지역 최대사업인 CJ라이브시티의 경우 지난 6월 아레나공연장의 건축허가가 승인됐다. 올해 안에 착공 예정이며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시설, 한류 콘텐츠로 꾸민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한류문화의 신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킨텍스 제3전시장은 건립부지와 사업비 62%를 미리 확보한 것이 주효하여 논의를 시작한지 4년 만인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는 총 면적 1,562㎡의 대지에 청년 창업 및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특화단지와 청년벤처타운,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여 올해 처음 진행된 공모 사업으로 지난 3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양시가 선정되었다. 국내외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사업화 및 전시·체험·소비를 연결시켜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번	사업명 (유관부서)	준공목표	주요내용
1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2024년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융복합 산업 조성 (첨단제조, 지식기반, 연구시설)
2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2023년	방송, 영상, 문화기능 집적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3	CJ 라이브시티	2024년	대형 아레나 공연장 및 라이브 이벤트 시설 조성
4	킨텍스 제3전시장	2023년	제3전시장 조성을 통한 핵심산업 전시 강화
5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2024년	청년주택 조성 및 지식산업 유치 도모(주거, 교통, 에너지 등 IoT, ICT 융합 스마트시티 건설)
6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2024년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를 바탕으로 콘텐츠 (웹툰, 방송, K팝 등)의 제작, 사업화, 체험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

✣ 시는 이 같은 대형 사업들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to-city 고양이노베이션 허브』를 선정하여 미래자족도시로 가는 목적성을 담았다. 이 명칭은 'to work city', 'to play city' 등으로 확장이 가능해 고양시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2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및 17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는 『to-city 고양이노베이션 허브』가 '자족도시'로 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조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 및 17만 명 고용 유발 효과

창업·친환경·교통 '생동감 넘치는 도시'… 창릉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고양시는 총 4만 호가 들어서게 될 창릉 3기 신도시에 약 120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이 부지에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이 둥지를 틀고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이들 기업의 성장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또 창릉지구 총 면적의 36%를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여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구현하고, 전체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2조 원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 민선7기 고양시는 재생사업을 통하여 마을에는 활력을, 공간에는 가치를 부여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시범지구 제1호 '성사혁신지구' 조감도

고양의 원도심,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2017년 화전과 원당을 시작으로, 2018년 일산동과 삼송, 2019년 능곡과 성사지역이 잇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고양시는 전국 최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

자료: 고양시정연구원

(원당) 어울림플랫폼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0(주교동)에 위치한 '원당 배다리 사랑나눔터'는 연면적 781㎡, 지상 5층 규모로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지난해 5월 준공된 마을 커뮤니티 공간 '배다리 행복 나눔터'에 이은 원당지역 어울림플랫폼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소통 공간이 될 것이다.

(일산)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삼송) 도시계획도로

고양시는 주민·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난 6월 일산농협창고를 매입했다. 이 공간을 마을 카페, 공연장, 청소년시설 등으로 채워 '복합문화예술창작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창작소는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더불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간이 될 것이다.

총예산 48억 원이 투입된 '삼송 도시계획도로'는 덕양구 삼송동 49-1 및 268-1번지 일대에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도로 선형이 불규칙하고 폭이 좁아 도로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로 지정받은 성사 혁신지구가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915억 원, 연면적 99,836㎡, 지상 25층 규모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및 교통정보센터 등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기업 입주공간 ▲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한 생활SOC 등이 대거 들어섬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능곡) 토당문화플랫폼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3월 개관한 '토당문화플랫폼'은 능곡역의 옛 모습을 보존하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토당문화플랫폼은 능곡 1904, 공감1904, 키친1904의 간판을 달고 카페·전시장·주민 교육장·공유주방 등으로 꾸며져 능곡 주민들의 새로운 사랑방이 되고 있다.

토당문화플랫폼 준공식

(화전) 드론앵커센터

경의중앙선 화전역 인근 4,524㎡ 부지에 지난 4월 착공한 '화전 드론앵커센터'는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예산 140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실내비행체험장, 드론 기업 입주 공간, 드론 연구개발 공간으로 꾸며지며 고양시 드론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받지 못한 채권처럼 주머니에 오랫동안 묵히거나 마음으로 가슴앓이해왔던 숙원 사업들이 있다. 고양시는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백석동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 ▲LH 개발이익 환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권리를 회복하여 시민에게 돌려줬다.

01

백석동 학교용지 5년 만에 소유권 이전

민선 5, 6기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온 백석동 학교용지(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반환 문제는 민선 7기에 이르러서야 환수에 성공했다.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올 2월 완료했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일산백석 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 준공일(2016. 9. 30.)까지 학교설립 절차를 미이행할 경우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주상복합 사용승인이 나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거부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60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며 청구채권 약 280억 원에 대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되찾은 백석동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정책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02

LH 개발이익, 상생협약 통해 지역 환수 '청신호'

고양시는 그동안 국가의 공익·발전·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지자체 개발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불합리한 개발이익 환원제도를 내세워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과밀개발을 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가중됨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시는 특히 삼송역 환승주차장 개방문제 등 지역현안 대응을 위하여 지난해 5월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LH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LH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내고, 운영방식 문제로 임시 폐쇄했던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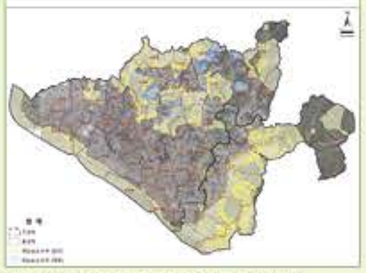
고양시는 LH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03

군사보호구역 해제… '평화통일 특별시' 비전 향해 한 발짝 성큼

고양시는 2018년 이전까지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하는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덕이동, 내유동 등은 취락지구 및 시가지 등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규제로 각종 개발이 어려운 데다 개발 시에도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민선7기 고양시는 공약사항인 군관협력관 채용 등을 통하여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밀접한 군관협력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애쓴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고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을 체결, 2020년 1월에는 430만㎡의 면적이 해제되었다. 또, 올해 1월에는 572만㎡가 추가로 해제되어 시민 재산권 회복 및 고양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평화통일특별시'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2021년 1월 60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파랑색 음영 부분)

생활밀접형 조례 제정

고양시는 민선7기 들어 시민을 존중하는 따뜻한 울타리와 같은 조례들을 잇따라 제정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등 다양한 생활밀접형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사람중심 행복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고양시는 지난 6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2학기부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고양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중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뺀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국민기초수급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그 외 해당 대학생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인권 사각지대 살피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고양시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설비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을 진행하는 등 교육·홍보 등을 통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주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육걱정 없도록, 한시적 양육비 지원

고양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양육비가 지원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은 올 1월부터 시행되어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안전이 최우선,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고양시는 배달시간에 쫓겨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처우가 열악한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배달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구입비지원사업을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맞는 안전장비를 구입한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금액의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아프면 쉴 권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입원하면 연간 3일간 하루 8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취약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가 입원할 경우 고양시 생활임금 기준 하루 8만1천120원씩 최대 3일까지 총 24만3천360원을 고양페이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월부터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달종사자 지원 자문단 간담회

특례시 지정

내년 1월 '고양 특례시'가 출범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칭한다. 고양시는 이미 대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미만의 중소도시와 같은 제도를 적용받아 왔다. 이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결과, 광역시와는 또 다른 형태의 자치체인 '특례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만큼, 시의 위상과 시민의자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09만 고양시민의 새로운 미래, 특례시 지정

2022년은 고양시민에게 기념이 될 만하다. 특례시 출범 원년인 동시에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민선7기 시작된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정을 확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례시는 만들어 가는 것

특례시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특례'라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이다. 이에 고양시를 포함한 4개 시는 특례시 실무대책위원회와 시정연구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특례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국특례시장협의회'를 출범시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또, 7월에는 특례시 시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특례'라는 이름에 걸맞은 특례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속 가득한 고양 특례시를 향한 기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높은 문턱도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그동안 시민주도의 특례시로 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고 이렇게 준비된 고양시는 지속적인 특례 권한 확보 노력을 통해 실속 가득한 고양 특례시로 발전해 가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세출예산이 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시민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 역시 개선될 것이다. 자치권한 역시 확대되어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들이 질적으로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 중앙이나 광역의 통제를 덜 받는 자주적 사업들이 확대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100년을 바라본 신청사 건립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된 지 어언 20년. 고양시는 민선7기 들어 결국 신청사 건립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신청사를 누구나 가보고 싶은 건물,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미래세대까지 앞는 10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중심 청사에서 탈피, 시민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고양시 신청사는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50억 원, 연면적 73,94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건립기금 1천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2021년 4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경기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지난 6월 최종 통과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사업의 필요성,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12월에 당선작이 최종 확정되면, 2023년 착공,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특례시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대비하여 사무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고, 작은도서관·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함으로써 시민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로드맵(전체 사업)

1단계	'20. 5.	신청사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용역 -기간 : '20. 4.~'21. 3. -내용 : 조감도, 청사규모 등
2단계	'20. 10.~'21. 4.	신청사 타당성 조사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기간 : '20. 10.~'21. 4. -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단계	'21. 3.~'22. 1.	G.B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G.B해제 및신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 : '21. 3.~'22. 1. -기관 : 경기도(GB해제) 고양시(시설결정)
4단계	'21. 4.~'21. 5.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신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1. 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21. 5.)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단계	'21. 4.~'21. 6.	경기도 투자 심사 신청사에대한 투자심사(경기도) -근거 : 지방재정법(500억 이상 사업) -기간 : '21. 4.~'21. 6.
6단계	'21. 8.~'21. 12.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 실시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기간 : '21. 8.~'21. 12. -당선작에 설계권 부여
7단계	'22. 2.~'23. 3.	신청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신청사 설계 추진(공모 당선작) -기본설계 완료-인허가 추진(8개월 소요) -실시설계 : 추가 10개월 소요
8단계	'23. 3.~'25. 10.	신청사 착공 및 건립 · 신청사 착공('23. 3.) · 신청사 준공('25. 10.) · 신청사 입주('26. 2.)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다양한 생태종의 보고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뤘다. 람사르습지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지난 2010년 고양시가 환경부에
건의한 이래 람사르습지 등록은 오랜
기간 정체를 겪었는데, 결국 민선7기
3년여 만인 지난 5월 람사르습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장항습지 생태적 가치의 국제적 인정

장항습지는 신평동·장항동·법곳동 등 한강하구를 따라 7.6km로 이어진 도심 속 습지다.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기수역(汽水域)이자 대륙 간 이동 물새의 중간기착지로 매년 3만여 마리의 새들이 도래한다. 또 재두루미·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큰기러기·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동물을 포함하여 1,066여 종의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번 람사르습지 등록은 장항습지의 이러한 생태적 가치와 생물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항습지 보존을 위한 지속적 노력

고양시는 장항습지를 보존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항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장항습지센터(가칭)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습지견학 및 습지보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습지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연구와 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항습지 버드나무숲 물골 복원, 겨울철새 먹이 나누기 활동, 생태통로 주변 나무 식재 등을 통하여 습지 생태계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시는 향후 장항습지를 행주산성·한강생태공원·호수공원 등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결할 생각이다. 생태관광의 거점지역 조성을 통하여 친환경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예산 적립

대형개발, 도시재생 등 산적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예산확보는 필수불가결이다. 이에 민선7기 고양시는 4,8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적립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 민선6기를 거치며 마련한 기금 및 특별회계는 151억 원에 불과했으나, 민선7기 들어 3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고양시 미래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예산명	용도	적립액(원)	증가율 (민선6기 대비)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현금출자, 특별회계	1,009억	신규
킨텍스 특별회계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비	250억	신규
철도사업특별회계	각종 철도사업 분담금	555억	신규
도시재생 특별회계	5개지역 도시재생	766억	신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택정비, 안전진단, 임대주택 등	281억	15억(15억)
신청사 건립기금	고양시신청사 건립	1,000억	신규
일자리기금	긴급한 일자리수요 대비	100억	신규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유치 등	27억	신규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 교류협력사업	80억	3.5억(2.9억)
공유임야특별회계	장기미집행공원 3곳 조성	731억	6.8억(10.6억)

대형개발 살리는 적립

VR·AR(가상·증강현실) 첨단 콘텐츠 사업 및 IT융합의료기술 등 신산업 우수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4차 혁명의 메카로 부상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로 1,009억 원을 적립했다. 전 세계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전시장으로 도약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서도 250억 원을 적립했다. 또, 각종 철도사업을 위한 분담금 555억 원도 적립하여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낡은 도심 살리는 적립

원당·화전·삼송·일산동·능곡 등 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766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81억 원 적립을 통하여 구도심은 새 옷을 입고 재탄생하게 된다. 또, 109만 시민의 일상을 뒷받침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될 고양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도 1천억 원의 기금이 새로이 확보되었다.

일자리와 기업 살리는 적립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기금 100억 원, 우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기금도 27억 원 적립하여 자족도시 고양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한 80억 원은 고양평화의료클러스터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투입하여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공간 살리는 적립

고양시는 731억 원 적립을 통하여, 공원 일몰제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공원 3곳을 정비하고 되살려 시민에게 도심 속 녹색공간을 돌려줄 생각이다.